

對필리핀 EU의 원조정책 동향

필리핀주재 EU대표부는 2005년 5월 3일 EU의 필리핀 국가전략보고서 초안(2007~13 Country Strategy Paper: CSP)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, 본 회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I. EU의 대 필리핀 중기전망

- EU는 향후 2007~13년간 필리핀에 대한 중기전망을 통해 낙관적 전망(가능성 20%), 현상유지 전망(가능성 60%), 비관적 전망(가능성 20%)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전반적으로 필리핀의 정치경제 개혁은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함.
- 그러나 재정적자, 빈부격차, 에너지부족, 인구증가 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, 주요 불안요소로 정치·재정 불안정, 경제성장을 하락, 우수두뇌 해외유출, 높은 인구성장률, 테러위험 상존 등을 지적함.

II. EU의 대 필리핀 원조계획

- EU는 향후 4년(2007~10)간 필리핀의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중점지원 부문으로 선정하고, 기타 지원 부문을 합하여 총 90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함.
- 보건부문에 25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빈곤층의 보건증진과 보건행정의 개혁을 지원
- 교육부문에 40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전국민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
- 소규모 프로젝트기금에 8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필리핀의 경제개발 및 반부패(governance) 개혁노력을 지원, 주로 NGO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 집행할 예정
- 세계은행의 민다나오 신탁기금(MDTF)에 12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민다나오 회교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 및 안전을 위한 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

트를 지원

- 무역 및 개발 연계부문에 5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EU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무역 장애요인제거 등 기술지원과 필리핀의 성장능력을 배양(capacity building)

거시경제정책 지원, 제도역량 배양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.

- 금번 국가전략보고서 초안은 EU의 필리핀에 대한 개발원조정책 집행의 기본지침으로서 ① 필리핀 정부의 개발수요, ② 사회단체의 의견, 그리고 ③ 외국원조기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원조집행 계획서가 될 것으로 평가됨.
- 이와 관련, 우리의 대외원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U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원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.

[자료: 주필리핀 KOICA사무소]

Ⅲ. 관찰 및 평가

- EU는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원을 개발원조정책의 목표로 규정하고 GNI대비 ODA 비중을 2006년까지 0.39%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개발 원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, 무역과 개발연계, 지역통합 및 협력,